

# 경기전 앞,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

### 전주시, 다목적 광장 조성... 경관개선·야간에도 운치 있는 환경 제공·소규모 공연 등 활기 기대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이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전주시는 총 3억 3000만원을 투입해 옛 경기전 앞 주차장 부지(약 1,234㎡)를 사람들이 몰리는 광장으로 조성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전과 전통성당 등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명소가 집중돼 수많은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공간인 한옥마을을 태조로가 더욱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조성된 경기전 광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 지난 2014년 폐쇄한 이후 주말 문화장터가 열리거나 각종 소규모 공연 장소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관광객들에게 방치된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한옥마을의 중심부인 경기전 앞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경기전 광장을 벤치와 조형물을 설치해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대신, 서울 광화문 광장처럼 공간을 비워두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모여 문화를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보리밭에서 찰칵

7일 군산시 미성동 보리밭 일원에서 열린 군산공당보리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축제는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농업인들의 의지를 담아 '공보리 밭, 끝없는 향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렸다.

시는 또 경기전 광장에 한옥담장과 잘 어울리는 경관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야간에도 운치 있고 밝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경기전 앞이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에 서 사람을 위한 광장으로 탈바꿈되면서, 연간 1000만명이 찾는 한옥마을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간을 갖게 됐다”라며 “앞

으로 이곳에서 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완산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자율관리 협약식

‘완산구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자율관리’ 협약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청과 완산의식업중앙회, 한옥마을소상공인협회, 서부신시가지 상가협회 및 3개 수거업체(청진·이삭·평안엔비텍)가 참석했다.

이들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업소가 자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업소명, 주소 및 수거업체를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를 실시해 업소가 책임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청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바른 관리방법 안내 및 지속적인 청결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다.

완산의식업중앙회 등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 홍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수거업체들은 수거 후 빈 용기를 건물부지 내 배치한다. /김민근 기자

## 전북대, 4차 산업혁명 이끌 공학인 양성한다

###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선정... 탄소·나노 융합 응용 기술 특화 공학인재 육성

전북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공학 연구자를 육성하고 탄소와 나노가 융합된 특화 기술 개발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대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공과대학 주도로 핵심 유망 산업을 특화 분야로 선정하고 산학연간 기술교류 및 협동연구를 촉진해 미래 신산업을 이끌 차세대 공학인 육성을 위한 것으로 전북대를 비롯해 전국에서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정부로부터 5년간 50억여 원을 지원받아 ‘탄소기반 나노 융합 응용기술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단 : CNN’이 중심이 돼 탄소 기반 나노 융합 응용 기술에 특화된 차세대 공학인을 육성한다.

이 사업에는 김학용·이중희·김남훈 교수(BN융합공학과), 박찬희 교수

(기계설계공학과) 등이 함께 참여하고 전문 연구 기관과 기업 등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전북대는 사업단 산하에 나노바이오 소재 응용 연구실과 탄소 발열 의류 연구실, 탄소 구조 재료 연구실 등 3개의 연구팀을 구성, 세계 최고 수준의 현장 맞춤형 연구 개발을 통한 핵심 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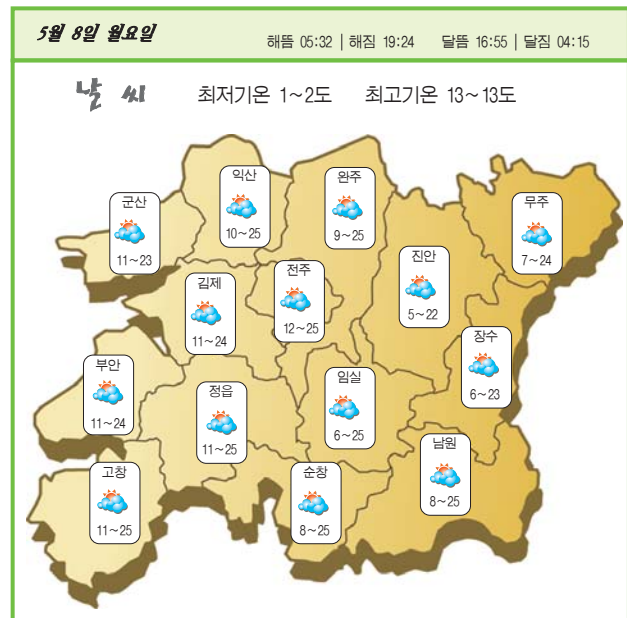
이를 통해 탄소·나노소재가 융합된 다기능 멤브레인 제조와 이를 바이오로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나노 섬유 마찰에 의한 자가 발열 의류 개발에도 나선다. 또한 구조 안정성을 지니는 기능성 다차원 탄소 네트워크 구조체도 개발한다.

특히 사업단은 대학에서 수행된 기본 연구를 참여 기업에 기술 이전에 상용화하고 나아가 대학과 기업이 공생하는 협력 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재양성을 위해 기초교육과

정과 연구논문의 국제학회 발표, 국제 인력 교류 등을 통해 융합 전문 연구 인력으로 성장하게 하는 전문 심화 교육과정과 산업화 적용 지식을 배양하게 하는 산업체 수요 지향적 교육과정 등을 운영한다.

또한 탄소 나노소재 설계 제조 응용 기술과 관련한 교과목을 바이오나노 기계시스템 대학원 과정과 BN 융합 협동과정에 다수 개설하고 매주 1회 공동 세미나와 연 1개월 간의 기업 현장 파견 등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생 단장(공대 학장)은 “이 사업은 공대가 중심이 돼 각 대학의 특화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공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나노와 탄소 융합 분야의 우수 기술 개발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현장 맞춤형 공학 전문 인재육성을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선정

전북대학교가 산림청이 지원하고 목재문화진흥회가 주관하는 ‘목재문화활성화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산림청 지원을 받아 목재와 목조주택 관련 이론과 실습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 선정에 따라 이를 이끌고 있는 김광철 교수팀(생활대 주거환경학과)은 이달부 11월까지 도내 초·중등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목공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실시되어 올해 활발해지고 있는 중등 자유학기제에 따라 연수

후 각 학교에서 적용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엔 전북대 가족회사인 목조건축연구소(목조건축 설계, 시공, 교육, 원목인테리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 더 넓은 이론·실습 공간과 체험 기자재 확보 등 여러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 목조건축 분야 메카로 자리매김한 전북대의 위상을 외부에 알리고 친환경 건축 재료인 목재의 활용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전주시 '인권마중물', 사전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체험 실시

전주시 상상동아리 ‘인권마중물’ 회원들이 장애인 등 인권약자들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인권마중물은 지난 4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한국전통문화전당(공남동 사전투표소) 등 3개소에서 장애인 등 인권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체험을 실시했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 등 인권약자들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위해 투표소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동아리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인권마중물은 이날 장애인 등 인권약자들이 무사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주변 진입경사로 설치 여부 △보도의 턱은 휠체어

가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 △투표소 입구의 너비 △이동통로의 너비 △승강기 설치 여부 △승강기 미설치 등 △소변기소 준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본 투표일(5월 9일) 하루 전에 설치되는 각 투표소에 대해 회원별로 1개 소씩을 선정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사항이 있을시 즉시 해당 동에 시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인권마중물 동아리 회장인 양영숙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아직 시에서 제대로 도입하기 전인 사업으로, 동아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체험에 참여하여 시행해 본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들을 인권적 관점으로 시범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행복한 교사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